



[금융] KB혁신금융협의회 “5년간 혁신기업에 63조 마중물” 05



Economy

코스피	1969.19 (+1.40)	코스닥	619.81 (+9.26)
금리 (미국 3년)	1.23 (+0.07)	환율 (원/달러)	1210.80 (-0.40) (2일)

위기의 한국경제 2면

1 ‘BYE 코리아’ 2.6조 던졌다

(외국인 8월 주식매도)

한국거래소

8월 유가증권 2.2조 국내이탈
3분기 상장사 영업익 전망도
지난해 동기비 42.3% 줄어

주식시장도 우리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실적부진과 선진국 지수의 한국 투자비중 축소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는 것.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EM) 지수의 8월 정기변경(리밸런싱)이 국내 수급을 악화시켰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 악화도 외국인 탈출의 요인으로 꼽힌다. 관련 약재는 연말까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MSCI I 지수에서 중국주식의 비중이 커지고 한국주식 비중이 줄면서 이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 자금이 추가로 빠져 나갈 전망이다.

2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외국인은 8월 중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2928억원어치 주식을 내다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조4389억원어치를 순매도한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강한 매도세다.

이날도 외국인 유가증권시장에서 (1245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순매도세를 이어갔다.

◆ 11월에도 MSCI '약재'

지난 달 외국인이 국내 주식 순매도 포지션에 들어선 것은 MSCI의 영향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글로벌 패시브 자금의 대부분은 MSCI 편입 비중에 따라 움직인다.

(지난해 3분기 대비 영업이익 감소폭 큰 상위 기업)

종목명	2018년 3분기			2019년 3분기 추정치			전년동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SK하이닉스	114,168	64,724	46,922	59,854	4,339	3,265	-47.6	-93.3	-93
한국조선해양	32,419	289	-216	35,727	33	-595	10.2	-88.5	적확
AP시스템	2,195	192	130	983	46	30	-55.2	-76.4	-76.6
삼성전자	654,600	175,749	131,507	602,032	69,331	55,613	-8	-60.6	-57.7
삼성전기	23,663	4,050	2,462	21,223	1,739	1,046	-10.3	-57.1	-57.5
엘앤에프	1,300	73	59	1,067	33	24	-17.9	-55.7	-59
원익PS	1,963	464	370	1,842	228	164	-6.2	-50.8	-55.7
SK이노베이션	149,587	8,358	4,594	132,780	4,125	2,178	-11.2	-50.6	-52.6
대한유화	6,450	876	743	5,652	471	403	-12.4	-46.2	-45.8

*IFRS 연결기준, 컨센서스는 추정기관수 3곳이상

/제공 : 에프앤가이드

MSCI는 지난 달 28일, 정기 리밸런싱(재조정)을 통해서 이머징마켓(EM) 지수내 한국주식의 비중을 11.7%에서 11.4%로 0.3%포인트 낮췄다. 대신 중국 본토주 비중을 늘렸다.

증권업계는 비중 축소로 인해 최소 2조원의 글로벌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할 것으로 봤는데 실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8월 한 달 동안 2조6080억원이 빠져나갔다. 앞서 5월에도 MSCI EM 지수의 정기변경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두드러진 바 있다.

MSCI발 약재는 더 남았다. 오는 11월까지 MSCI EM 지수내 중국 본토주 반영비율이 15%에서 20%로 다시 늘어나게 된다.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한국 시장 비중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황세은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수를 따라가기 위해선 중국의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한국 비중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 “호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이 11월까지 한국 주식 비중을 완만하게 축소시켜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 3분기 상장사 실적도 '쇼크'

국내 상장사의 실적 부진도 외인의 매도세를 부추기는 요소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 상승 상황에서 외국인 환손실을 감안하면서까지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는 것은 그만큼 국내 증시 전망을 어둡게 본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129개 상장사의 올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보다 무려 42.3% 줄어든 23조9242억원으로 집계됐다.

(2면에 계속)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조국 후보자 딸 논란에 대입제도 개편 百년 아닌 '1년대계' 지적

'2022학년도 대입' 개편 1년만
교육부 4일부터 본격 논의키로

조국 후보자 딸의 대입 의혹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 전반의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1년마다 대입제도를 개편하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의 큰 틀은 유지하되 대입의 신뢰도 개선을 위한 입시 운영에 관한 추가적인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일 문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지시와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는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을 수행 중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귀국한 이후인 4일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지시인 만큼 추가적

인 대입 제도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다는 설명이다.

한상진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대입제도가 단순히 대입만 손본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 발언 취지는 대입뿐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까지 다 같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이미 큰 틀의 계획이나와 있는 2022학년도 입시 계획에는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방법 개선 등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문 대통령 발언 전 교육부와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학종 공정성 개선 방안은 그동안 계속 검토해 왔고 청와대와도 협의 중이었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연합뉴스 기자 hys@



문재인 대통령과 브라질 대통령 두르네투가 2일 오전 방콕 총리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국은 신남방 핵심 파트너”

韓-泰 정상회담

태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브라질 잔오차 총리와 총리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양국간 상생협력 및 국민간 우호증진 협력, ▲한-아세안 협력, ▲한반도 평화 구축 협력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 7월 출범한 신정부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브라질 정부가 처음 맞이하는 외국정상이라는 게 여러 전언이다. (관련기사 4면)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 때

“태국의 성공적인 신정부 출범을 축하드린다. 신정부의 첫 외국정상 방문으로 본인을 맞아줘서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며 “작년 아셈(ASEM) 정상회의 때 양국 수교 60년을 기념하는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오랜 우호협력 역사를 확인했다. 새로운 60년 우정을 시작하는 올해, 태국을 방문해 양국의 미래 발전을 협의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태국은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 (3면에 계속) /태국=우승준 기자 dn1114@

2 “연금·건보 감안 정부부채 세계 2위”

한경연 '부채비율 국제비교'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 38.1%
가계부채 97.7%... 43국 중 7위
기업부채 101.7% 전년비98% ↑

대한민국 경제가 빛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전 세계 43개국을 조사한 '정부·가계·기업 GDP 대비 부채비율 국제비교'를 2일 발표했다. 국제결제은행(BIS) 비금융부문 신용통계를 이용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GDP 대비 부채비율이 연 평균 14.4%나 늘었다. 아르헨티나(29.2%)와 중국(17.9%)에 이은 3위다. 부채비율만으로 보면 38.9%로 43개국 중 32번째였지만, 후일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도.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잠재부채도 많았다. 연금과 보건의료지출 증가

로 추정해 산출한 수치가 GDP 대비 159.7%에 달했다. 브라질(248.1%)에 이은 2위다. 42개국 평균은 77.4%로 2배 이상 높았다.

정부부채도 마찬가지였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38.1%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미국(60.7%), 스페인(44.3%), 영국(36.5%), 아일랜드(24.4%) 등 4개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 4개국은 금융위기 당시 정부부채가 100% 이상으로 급격하게 뛰었다.

한경연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기 때문”이라며 “잠재부채는 미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정부부채를 밀어올리기 때문에 사전대비를 위해 정부부채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가계 부채 비율도 심각했다. 지난해 GDP 대비 가계부채는 97.7%로 43개국 중 7번째로 많았다. 증가 속

도도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5번째인 연평균 9.8%를 기록했다. 상위 10개국 중에는 최하치다.

가계빚 상환부담도 급증했다. 지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2.45%로 1999년 이후 최하치였다. 저금리 기조에도 부채가 크게 늘어 DSR도 올랐다는 설명이다.

기업부채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GDP 대비 기업부채는 101.7%로 세계 16위였다. 43개국 평균이 2017년 95.5%에서 2018년 94%로 소폭 하락했지만, 한국은 2017년 98.3%에서 올라 10%를 넘어섰다.

재무구조도 악화됐다. 영업이익으로 부채이자도 못내는 기업이 2017년 32.3%에서 지난해 35.7%로 늘었다. 올해에도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 비중이 13.8%에서 17.3%로 증가하면서 위기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 /김재승 기자 juk@